



2026 VISION

#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 가정

###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 성경이야기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나요? “어, 나 부르나?” 하고 얼른 돌아보지요. 그런데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흔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그 제사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누웠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그때 사무엘은 배운 대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소리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준비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친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말해볼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 예배순서

사도신경 ..... 다 같이

찬송 천국은 마치 ..... 다 같이

말씀봉독 사무엘상 3:1~14절 ..... 다 같이

설교 부르시는 하나님, 듣는 아이 설교자

말씀나눔 ..... 다 같이

합심기도 ..... 다 같이

축복기도 .....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 다 같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 찬양



천국은 마치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세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말씀나눔

1.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처음에 누구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나요?

2.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